

여자 대학생의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가면 증후군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범수진** · 설경옥***

I 알기 쉬운 개요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나, 경력 단절, 유리천장과 같은 여성 진로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여전하다. 또한 오늘날의 성차별은 전통적인 성차별의 형태와 달리 미묘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내의 성차별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의 진로 발달에 있어 가족 요인, 그중에서도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 내에서 미묘한 성차별이 심할수록 여자 대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과도하게 의심하는 이른바 가면 증후군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 여성의 능력을 제한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성차별은 가면 증후군을 심화시키고, 이는 진로에 대한 포부를 낮추어 긍정적 진로정체감 형성을 방해하였다. 즉, 은연중에 드러나는 가족 구성원의 성차별적 언행이나 형제와의 차별적 대우는 여성의 효능감과 도전 의지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확신을 약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진로 발달을 위해 성평등한 가족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진로 상담 과정에서 가족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범수진(2024)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장훈장학회의 후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koseol@ewha.ac.kr

투 고 일 / 2024. 12. 4.

심 사 일 / 2025. 2. 4.

심사완료일 / 2025. 2. 17.

I 초록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이 가족 내에서 경험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이들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평가절하와 자기 의심을 경험하는 현상인 가면 증후군과, 개인의 진로 영역에서 기대하는 성취 수준과 열망인 진로포부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만 18세-29세 여자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Mplus 8.0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빈번할수록 여자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가면 증후군을 매개하여 진로정체감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했다.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빈번할수록 가면 증후군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이는 낮은 진로정체감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셋째,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가면 증후군과 진로포부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여자 대학생이 가족 내에서 겪는 일상적이고 미묘한 성차별은 여성의 개인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이는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가면 증후군 그리고 진로에 대한 낮은 포부로 이어져 진로정체감 형성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성차별이 진로 탐색과 선택의 시기에 놓인 성인기 초기 여자 대학생의 진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진로 상담 개입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가면 증후군, 진로포부, 진로정체감, 여자 대학생

I. 서 론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하고 안정된 자아상으로 정의된다(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이러한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직업 선택과 직업 만족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져 왔다(박연옥, 박수진, 허정, 2017; 양난미, 이은경, 2012). 특히 자아개념이 확립되고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성인 초기는 진로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때 가정에서의 경험과 가족 요인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atool & Ghayas, 2020).

국내 연구에서 진로 발달을 예측하는 가족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애착, 의사소통 유형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에 있어, 자녀의 성역할 태도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고(이주연, 한세영, 2004), 아버지의 양육 태도와 가치는 자녀의 진로 발달과 관련 있었다(김인기, 2012).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의 원인이 되는 가족 구성원의 성차별적 언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기존의 성차별 연구는 주로 Glick와 Fiske(1997)가 제시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현대적 성차별은 보다 은밀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Capodilupo et al., 2010), 이를 미묘한 성차별(Gender Microaggression)로 설명한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이란 본래 인종차별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유색인종에 대한 언어적, 행동적, 환경적인 차별이 일상에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미묘하게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Sue et al., 2007). 이 개념은 인종뿐만 아니라 젠더와 성적 지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미묘한 성차별은 미묘한 공격, 미묘한 모욕, 미묘한 무효화로 분류된다(Sue, 2010). 미묘한 공격은 성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전통적 성차별과 가장 유사하다(Sue, 2010). 미묘한 모욕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나 행동을 의도치 않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미묘한 무효화는 여성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언어적 표현을 말한다(Sue, 2010). 결국 미묘한 성차별은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결합된 형태로, 개인이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형성된 무의식적인 성별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Sue와 Capodilupo(2008)의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을 성적 대상화, 전통적 성역할의 가정, 이등 시민화, 열등함의 가정, 성차별적 언어, 성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의 6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덧붙여 Nadal(2010)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성차별을 부인하기, 환경적인 미묘한 차별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미묘한 성차별은 가해자가 본인의 성차별적 행동이나 발언을 인지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우 일상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묘한 성차별 개념도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차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직장에서의 성차별, 여성 경시, 딸 역할에 대한 기대의 6개 군집이 도출되었다(강혜원, 이정윤, 2020). 국외 연구와는 달리 국내 연구에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이 포함된 점은 한국의 특수한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미(2019)는 한국의 남아 선호 감소와 여아 선호 증가 현상이 정서적 돌봄에 대한 기대와 노후 대비의 측면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일상화된 성차별, 성별화된 직종과 더불어 ‘여전히 존재하는 아들 선호’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남자 형제와의 차별이나 왜곡된 여성성의 강요를 포함한다(임윤서, 안윤정, 2016). 즉, 여성은 가족 내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요받거나, 정서적 돌봄과 같은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미묘한 형태의 성차별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차별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박송이, 2022). 따라서 여성 진로정체감 형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성 특유의 진로 발달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일상 속 미묘한 성차별은 여성의 진로 개발에 부정적이었다. 여성이 겪는 미묘한 성차별은 이직 의도를 높였고(안진아, 2022). 괜찮은 일에 대한 지각을 낮추어 진로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전소영, 심예린, 2022). 이는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 또한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다.

국외에서도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여성의 진로 발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묘한 성차별이 여성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중 성차별과 여성의 진로 발달에 대한 이해에 있어 주목할 연구는 북미와 유럽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에서 여성이 고전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이다. 여대생들은 STEM 분야의 전공을 덜 선택하였고, STEM 분야로 전공을 선택했다더라도 STEM 분야 직업으로의 진입 혹은 유지 비율은 남성에게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Delaney & Devereux, 2022). 그 이유로 밝혀진 중요한 변인 중 하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으로, 이는 STEM 분야 여성의 자기효능감과(Kuchynka et al., 2018) 진로정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STEM 분야를 떠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Kim & Meister, 2023). Dunlap과 Barth(2019)에 따르면 여대생이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의도치 않게 학습하게 되는 성별-직업 연합에 대한 암묵적 진로 고정관념은 암묵적 진로 정체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STEM 분야 전공 선택을 감소시켰으며, STEM 분야를 선택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암묵적 진로 고정관념의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암묵적 진로 고정

관념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쳐 진로 선택의 폭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대생들도 가족 내에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빈번할수록 이들의 직업 관련 자아개념에 암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진로정체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가면 증후군과 진로포부가 매개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가면 증후군(Impostor Syndrome)은 자신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성취, 지위에 비해 지속적으로 무능감과 회의감을 경험하는 자기 의심이다(Clance & Imes, 1978).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는 개인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꺼리거나 성공을 운과 같은 외적인 원인으로 돌리고,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 즉 가면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Clance & Imes, 1978). 가면 증후군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기효능감과 같은 정신 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Cusack, Hughes & Nuhu, 2013), 수행력, 적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arrett, 2010).

가면 증후군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빈번하고 강렬하게 나타난다(Li, Hughes & Thu, 2014). 가면 증후군의 성차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33개의 연구논문 중 16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성이 더 많은 비율로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17개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었다(Bravata et al., 2020). 성취가 높은 혹은 고학력 여성일수록 무능감과 자기 의심을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한다(Clark, Vardeman & Barba, 2014). 남성이 여성보다 더 똑똑하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묘사하는 성별 고정관념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나, 더 발전했거나, 더 성평등한 국가에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Napp & Breda, 202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내면화한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평가절하를 하는 가면 증후군을 더욱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다.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가면 증후군 경향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김기연, 이용현, 2023).

가면 증후군의 개념을 처음 제안한 Clance와 Imes(1978)는 가족 환경으로부터 내면화된 노골적이고 은밀한 메시지가 가면 증후군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내면화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시작된 자기 의심은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더욱 악화된다. 예를 들면, 자신이 남성보다 똑똑하지 않다는 생각을 어린시절부터 내면화한 여성은 자신이 높은 업적을 달성한다 해도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귀인하기 보다는 어떤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면 증후군으로 이어지게 된다(Clance & Imes, 1978).

아직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가면 증후군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부모의 과잉 보호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가면 증후군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Yaffe, 2020),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미묘한 성차별이 반추와 자기 의심을 야기하고(Kim & Meister, 2023), 미묘한 성차별로 인해 겪게 되는 미묘한 무효화는 여성의 자아정체성을 위협하여 자기 의심을 증가시켰다는(Sue, 2010)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가족 내에서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할 경우 자기 의심을 일부 특징으로 하는 가면 증후군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면 증후군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는 국외의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면 증후군은 진로정체감 뿐만 아니라 직업적 성과에도 부정적이었다(Hutchins & Rainbolt, 2017). 또한 성차별적 진로 환경에 놓인 여성들이 가면 증후군과 같은 자기 의심을 겪게 되면서 진로정체감 발달이 잠정적인(tentative) 수준에 머물렀다(Barnard, Rose, Dainty & Hassan, 202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가면 증후군 경향이 높게 나타날수록 진로정체감이 낮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타협하는 데에 있어 자기개념을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타협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데, 가장 먼저 흥미, 다음으로 지위, 마지막으로 성역할을 타협한다(Gottfredson, 1981). 즉,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내면화한 성역할은 자기개념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타협되는 요소가 된다. 이는 흥미가 있더라도 성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진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성장하면서 현실과 이상을 비교하며 타협하고 진로 선택을 구체화하며, 상황에 적절한 수준의 진로포부를 형성한다(이정미, 2000). 진로포부는 개인이 진로 영역에서 희망하는 목표, 성취 수준과 발전에 대한 열망과 기대 수준, 그리고 헌신의 정도를 의미한다(Gray & O'Brien, 2007). Gottfredson(1981)이 제안한 진로포부 발달 단계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에서 개인은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고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며 진로포부를 형성한다. 이어서 내적 자아 확립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앞서 축소했던 진로 대안 중 자신의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성과 부합하는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포부 수준에 따라 진로 결정의 핵심 요인이 되는 진로정체감이 다르게 형성된다.

가족 내에서 경험한 성차별은 여대생의 진로포부 수준과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는 낮아졌고, 그중 여학생 집단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가 낮아졌으나, 남학생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양난미, 2008; 유진희, 2012). 대학생 집단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여대생의 진로포부는 낮아졌다(이의빈, 엄명용, 2019). 온정적 성차별에 노출된 여성들은 성취포부가 낮았고(Rudman & Phelan, 2010) 자신을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리더십포부의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Rollero & Fedi, 2014). 이러한 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미묘한 성차별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며, 이는 진로포부를 비롯한 여러 진로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가면 증후군과 진로포부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면 증후군은 목표를 추구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키며, 실패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켜 개인의 진로포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대학생이 경험하는 가면 증후군은 진로 계획, 진로 분투,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동기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Neureiter & Traut-Mattausch, 2016). 가면 증후군을 경험할수록 현재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적 기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알맞은 수준의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Vergauwe, Wille, Feys, De Fruyt & Anseel, 2015). 가면 증후군을 더 빈번하게 경험할수록 자신감과 진로 관련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으며(Jöstl, Bergsmann, Lüftenegger, Schober & Spiel, 2012),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여 리더의 자리에 오르하고자 하는 열망과 상급 단계의 학교에 진학하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학위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낮았다(Klinkhammer & Saul-Soprun, 2009).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여대생은 더 낮은 진로 정체감을 보고할 것이며, 이 관계를 높은 가면 증후군과 낮은 진로 포부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가면 증후군 수준이 높고, 이는 낮은 수준의 진로포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낮은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및 이론을 근거로 가면 증후군은 진로정체감을 부적으로, 진로포부는 진로정체감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보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www.invight.co.kr)”에서 국내 여자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Invitation-based Panel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만 29세이며($M=22.38$, $SD=2.20$), 대학 유형은 4년제가 277명(92.3%), 3년제 12명(4.0%), 2년제 11명(3.7%)이었다. 학년은 4학년이 112명(37.3%), 3학년 71명(23.7%), 2학년 58명(19.3%), 1학년 46명(15.3%), 9학기 이상

13명(4.3%) 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69명(23.0%), 인문계열 63명(21.0%), 공학계열 46명(15.3%), 자연과학계열 36명(12.0%), 예체능계열 29명(9.7%), 의약계열 24명(8.0%), 교육계열 23명(7.7%), 기타 10명(3.3%)이었다.

2. 측정도구

1)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여자 대학생이 경험하는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박송이(2022)가 개발 및 타당화한 가족 내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Gender Microaggression in Family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이며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이 척도는 과도한 보호적 태도(예. 내가 남자였더라면 외박할 때 가족들이 지금보다 덜 제재했을 것이다.), 자기 대상화(예. 내가 남자였더라면 가족들이 나와 다른 사람의 외모를 지금보다 덜 비교했을 것이다.), 성취 및 능력 제약(예. 내가 남자였더라면 가족들은 내 학업에 지금보다 더 금전적으로 지원해주었을 것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예. 가족들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등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과도한 보호적 태도 .90, 자기 대상화 .92, 성취 및 능력제약 .90, 성역할 고정관념 .92였다.

2) 가면 증후군

가면 증후군을 측정하기 위해 Clance(1985)가 개발한 Clance Impostor Phenomenon Scale(CIPS)을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역 승인은 이메일 연락으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연구자가 원척도를 번역한 것을 이중언어 사용자가 역번역하였다. 역번역한 문항 중 원문과의 차이가 있는 문항은 연구자와 심리학 전공 이중 언어 사용자가 함께 논의하여 수정하였다(예.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렵다, 나는 나의 성공이나 총명함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나의 성공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나는 내가 한 일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원척도는 총 20문항이며, Chrisman, Pieper, Clance, Holland and Glickauf-Hughes(1995)의 초기 타당화 연구에서는 다른 문항과의 상관이 매우 낮은 1, 2번 문항을 제외하여 'Fake', 'Discount', 'Luck'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러

나 이후 타 문화권에서 타당화를 진행한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단일 요인으로 확인되었다(Erekson et al., 2024; Freeman, Houghton, Carr & Nestel, 2022; Jöstl et al., 2012; Şahin & Gülşen, 2022; Simon & Choi, 2018).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세 가지 하위 요인이 내용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가면 증후군의 핵심인 '두려움'이라는 더 큰 요인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Erekson et al., 2024).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요인 적재량이 매우 낮게 나타난 1, 2번 문항(0.100 미만)을 제외한 18문항을 요인 알고리즘 방식으로 네 꾸러미를 만들어 문항묶음을 하였다. 이때 각 꾸러미는 요인부하량이 최대한 균등하도록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고,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3) 진로포부

진로포부를 측정하기 위해 O'Brien(1996)이 개발하고 Y. H. Kim, O'Brien and Kim(2016)이 한국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 및 수정, 타당화를 한 진로포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Career Aspiration Scale-Revised; K-CAS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여성이 리더십 있는 직책과 지속적인 교육을 열망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취포부(예. 나는 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 리더십포부(예. 나는 내가 일하는 분야의 리더가 되고 싶다.), 교육포부(예. 나는 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학위를 이수할 계획이 있다.)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성취포부 .85, 리더십포부 .92, 교육포부 .90였다.

4)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et al.(1980)의 진로정체감 척도, 전윤식, 이성해, 정영홍, 박선자와 김상구(1988)의 자아정체감 검사, Dignan(1965)이 제작한 자아정체감 검사를 박아청(1984)이 개편한 검사를 바탕으로 조은주(2001)가 진로 관련 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 5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하위 요인은 안정성(예. 미래 나의 직업 분야는 현재 내가 희망하는 직업 분야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목표지향성(예.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독특성(예. 진로에 관한 나만의 독특한 성격, 적성,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 자기주장(예.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자기존재의식(예.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 분야를 잘 알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안정성 .77, 목표지향성 .80, 독특성 .80, 자기주장 .64, 자기존재의식 .82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과 Mplu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첫째,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료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둘째, 각 변수에 대한 상관분석과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연구 모형을 검정하기 전 정확한 추정을 위해 가면 증후군 척도에 대하여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요인 알고리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가설 및 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정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는 .90이상(Bentler, 1990), SRMR은 .08 이하(Hu & Bentler, 1999), RMSEA는 .08~.10인 경우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rowne & Cudeck, 1992). 또한 부트스트래핑 분석 시 원자료($N=300$)에서 5000번의 표집을 진행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의 왜도의 범위는 -1.09~.95, 첨도의 범위는 -1.14~1.08로, 왜도 ± 3 미만, 첨도 ± 10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여(Kline, 2011)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은 가면 증후군과 유의한 정적 상관($r=.40, p<.01$)을, 진로정체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23, p<.01$)이 있었으나, 진로포부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가면 증후군의 경우 진로포부($r=-.20, p<.01$)와, 진로정체감($r=-.39, p<.0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진로포부는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r=.57, p<.01$)이 있었다.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본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325.811(df=98, p<.001)$ 로 구조방정식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의 경우 CFI의 값이 .928, SRMR의 값이 .065, RMSEA 값이 .088으로 본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에서 가면 증후군($\beta=.472, p<.001$)에 이르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진로정체감($\beta=-.168, p<.05$)에 이르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가면 증후군이 진로포부($\beta=-.268, p<.01$)에 이르는 경로와 진로정체감($\beta=-.204, p<.01$)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진로포부가 진로정체감($\beta=.576, p<.001$)에 이르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진로포부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1).

여자 대학생이 경험하는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가면 증후군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에서 진로정체감에 이르는 총 효과($\beta=-.284, p<.001$), 총 간접효과($\beta=-.116, p<.05$), 직접효과($\beta=-.168,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가면 증후군을 통해 진로정체감에 이르는 경로($\beta=-.096, CI=-.17\sim-.03$)는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가면 증후군과 진로포부를 통해 진로정체감에 이르는 경로($\beta=-.168, CI=-.30\sim-.04$)는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진로포부를 통해 진로정체감에 이르는 경로($\beta=.053, CI=-.15\sim.15$)는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300)

	1	1-1	1-2	1-3	1-4	2	3	3-1	3-2	3-3	4	4-1	4-2	4-3	4-4	4-5
1	1															
1-1	.58**	1														
1-2	.86**	.33**	1													
1-3	.79**	.20**	.62**	1												
1-4	.87**	.41**	.67**	.59**	1											
2	.40**	.15**	.41**	.31**	.34**	1										
3	.02	.17**	-.07	.02	-.02	-.20**	1									
3-1	-.05	.20**	-.11	-.11	-.08	-.11	.85**	1								
3-2	.09	.15*	-.01	.15**	.02	-.24**	.87**	.65**	1							
3-3	-.01	.11	-.07	-.02	.00	-.17**	.88**	.63**	.63**	1						
4	-.23**	.09	-.29**	-.27**	-.18**	-.39**	.54**	.46**	.36**	.57**	1					
4-1	-.29**	.01	-.34**	-.30**	-.23**	-.37**	.35**	.30**	.21**	.39**	.81**	1				
4-2	-.21**	.06	-.25**	-.25**	-.18**	-.36**	.46**	.39**	.32**	.50**	.93**	.74**	1			
4-3	-.14*	.14*	-.25**	-.16**	-.12*	-.40**	.55**	.46**	.43**	.54**	.89**	.59**	.79**	1		
4-4	-.14*	.13*	-.16**	-.27**	-.10	-.23**	.43**	.41**	.22**	.49**	.79**	.53**	.65**	.64**	1	
4-5	-.18**	.06	-.21**	-.20**	-.16**	-.29**	.52**	.44**	.37**	.54**	.90**	.60**	.79**	.79**	.68**	1
평균	3.76	5.25	2.47	3.68	3.64	3.28	3.53	3.79	3.28	3.49	3.40	3.28	3.39	3.39	3.54	3.43
표준편차	1.27	1.33	1.60	1.75	1.77	0.67	0.67	0.66	0.94	0.73	0.58	0.70	0.71	0.68	0.55	0.68

1.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1-1. 과도한 보호적 태도 1-2. 자기대상화 1-3. 성취 및 능력 제약 1-4. 성역할 고정관념 2. 가면 증후군 3. 진로포부 3-1. 성취포부 3-2. 리더십포부 3-3. 교육포부 4. 진로정체감 4-1. 안정성 4-2. 목표지향성 4-3. 독특성 4-4. 자기주장 4-5. 자기존재의식.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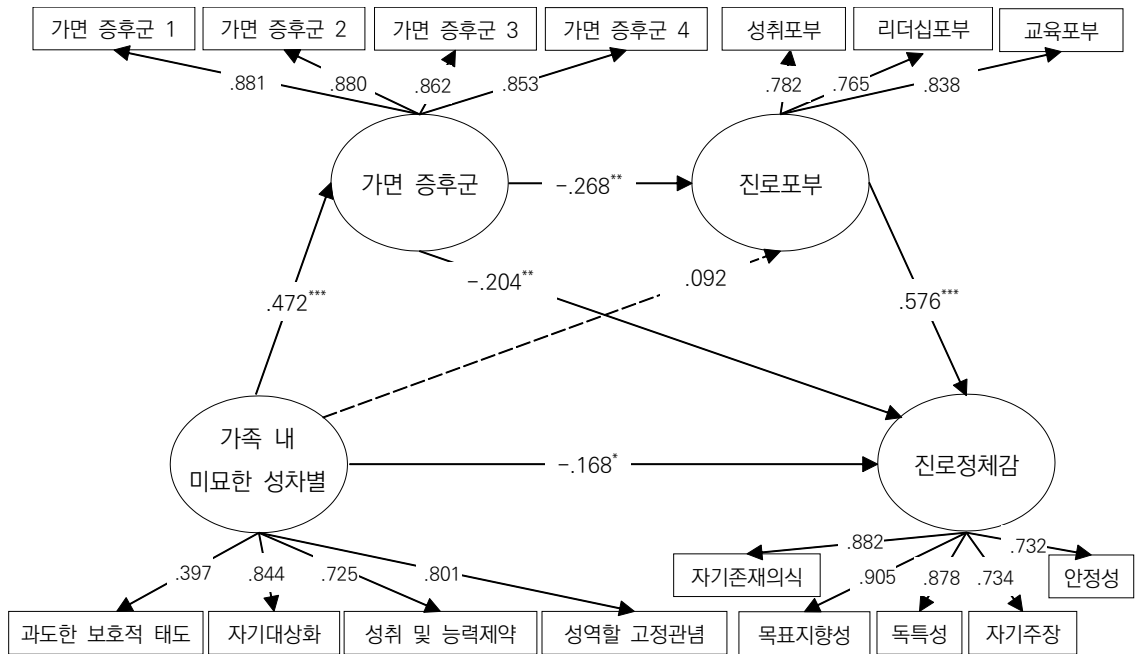


그림 1.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정 결과 (표준화 계수)
* $p<.05$, ** $p<.01$, *** $p<.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오차항 표기는 생략함

표 2
매개효과 검정 결과

경로		B	β	S.E.	95% CI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 진로정체감					
총 효과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 진로정체감	-.415**	-.284***	.062	-.40~- .16
총 간접효과		-.170	-.116*	.056	-.23~- .01
간접 효과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 가면 증후군 → 진로정체감	-.141*	-.096**	.035	-.17~- .03
효과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 진로포부 → 진로정체감	.078	.053	.052	-.05~.15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 가면 증후군 → 진로포부 → 진로정체감	-.107**	-.073**	.025	-.13~- .03
직접효과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 진로정체감	-.245*	-.168*	.064	-.30~- .04

* $p<.05$, ** $p<.01$, *** $p<.001$

IV. 논 의

성인기 초기 대학생 시기는 미래의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요한 때이며 진로정체감에 대해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오치선, 이복희, 2005). 이러한 발달 과정에 놓인 여자 대학생에게 성차별적인 환경 요소는 주요한 진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경험하는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가면 증후군과 진로포부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과 가면 증후군, 진로포부, 진로정체감 간의 직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른 모형 검증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여자 대학생이 경험하는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은 가면 증후군을 매개로 진로 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가면 증후군과 진로포부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진로 정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가족 내에서 미묘한 성차별을 더 빈번하게 겪는 여성은 더 많은 자기 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열망을 낮추어 진로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 구성원이 행하는 미묘한 성차별은 여성으로 하여금 진로 대안을 성역할 안으로 제한하거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여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가면 증후군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Li et al., 2014; Yaffe, 2020), 가면 증후군이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낮은 직업적 만족, 높은 소진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Chakraverty, 2019; Hutchins, Penney & Sublett, 2018)와 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일상 혹은 직장 생활에서의 일상적 성차별 경험이 전공 분야의 자기효능감을 부적으로 예측했고(Kim & Meister, 2023; Kuchynka et al., 2018) 성차별적인 진로 구조를 경험하는 여성이 가면 증후군을 더 많이 보고했다는 선행연구 결과(Bernard, Lige, Willis, Sosoo & Neblett, 2017)를 지지함과 동시에, 보다 가까운 환경적 맥락인 가족 환경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성차별과 진로포부 또한 여성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여자 대학생이 경험하는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은 진로정체감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여성이 일상 속에서 겪는 미묘한 성차별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Kim & Meister, 2023; Kuchynka et al., 2018)와, 부모의 양육 태도나 기대 수준은 진로 정체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는 결과(윤은영, 이지연, 2016; 염서영, 진정아, 2017)와 비슷하다. 즉, 여성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경험하는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과 같이 여성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부여받는 성역할과 제재는 진로 선택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진로정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진로포부에 이르는 직접 경로와, 진로포부를 매개로 하여 진로정체감에 이르는 간접 경로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과 진로포부 간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가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유진희, 2012; 이의빈, 엄명용, 2019)와는 달랐다. 그러나 성차별을 관찰하는 것이 여성의 성과-기반-상태자존감을 낮추어 진로포부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와(Bradley-Geist, Rivera & Geringer, 2015) 자비로운 성차별이 자존감과 정서적 고갈을 순차매개하여 여성의 진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Song & Chang, 2025)를 통해 여대생의 진로 포부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성차별 경험과 더불어 자아 개념과 관련된 변인인 가면 증후군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진로 선택의 과정에 있는 성인기 초기 여자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것이다.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연구는 국외에서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김은하(2018)가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를 개발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여성에게 딸의 역할이 부여되는 점을 새롭게 반영하여 박송이(2022)가 가족 내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으나,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성차별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개인 내적인 심리적 어려움인 가면 증후군을 통해 진로포부와 진로정체감 발달을 저해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힌 의의가 있다.

둘째,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가면 증후군 발달의 원인이 되며, 이는 진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밝힌 의의가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가면 증후군을 더 빈번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으며(예; Li et al., 2014), 여성의 성취에 대해 부정적인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 우리나라 여성 역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거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등의 가면 증후군을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 여성의 가면 증후군 경향성이 남성보다 높았다(김기연, 이용현, 2023). 이렇듯 가면 증후군이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안되어 왔으나, 가면 증후군 발달의 시작점이 되는 가족 환경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성차별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낮추고, 성과를 드러내지 않도록 학습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가면 증후군이 여성의 진로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여자 대학생의 진로 상담 개입의 한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로정체감 발달 시기가 대학교 시기로

유보되는 경향이 있지만(이응택, 최재혁, 2017), 동시에 대학 입학 전에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진로 결정의 시기에 놓이기도 한다. 한 개인이 경험하는 가족 내의 미묘한 성차별은 대학 입학 전부터 오랜 시간 영향을 미쳐왔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아 개념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 후에도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기 평가 절하를 하거나 지속적인 자기 의심을 겪는 가면 증후군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진로포부 및 진로정체감 확립과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가면 증후군을 겪는 개인은 자신이 이러한 감정을 겪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기 힘들고, 이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Clance & Imes, 1978)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진로 상담에 있어 여자 대학생이 직면한 사회 구조적 차별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경험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능력을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20대 여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진로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령대에 따라 경험하는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은 그 유형과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청소년기와 성인 진입기의 경우 가족 내의 미묘한 성차별이 주로 부모와 원가족으로부터 비롯되지만, 경제적 · 심리적 자립을 추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성인기에는 원가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가령 이 시기에는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이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남성에게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면 증후군 척도는 아직 국내에서 타당화 한 연구가 없다. 가면 증후군은 학력이 높고 성취 수준이 높은 여성에게 더 빈번하고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국외 연구가 있지만(Clark et al., 2014), 그 발생 양상에 있어 성별과 나이에 따른 차이는 상이하였다(Bravata et al., 2020).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면 증후군 척도를 국내 참여자를 대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집단을 대상으로 가면 증후군의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이 이들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면 증후군과 낮은 진로포부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 이외에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진로정체감 형성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 다른 매개변인(예: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족 내 미묘한 성차별이 개인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혜원, 이정운 (2020). 미묘한 성차별 (Gender Microaggression) 에 대한 개념도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63-92. doi:10.33949/tws.2020.106.3.003
- 김기연, 이용현 (2023). 운동선수의 가면 증후군 경향성이 성취목표 성향과 조절초점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34(3), 444-455. doi:10.24985/kjss.2023.34.3.444
- 김용미 (2019). 다양한 연령 대 여성들의 자녀 가치관과 자녀 성 선호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28(4), 5-19. doi:10.17643/KJCE.2019.28.4.01
- 김은하 (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93-614. doi:10.20406/kjcs.2018.11.24.4.593
- 김인기 (2012).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 특성과 대인불안,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 경로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0(2), 29-56. doi:10.35151/kyci.2012.20.2.002
- 박송이 (2022). **가족 내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아청 (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 박연옥, 박수진, 허정 (2017).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7(2), 103-124. doi:10.35273/jec.2017.7.2.006
- 안진아 (2022). 여성 근로자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 팬찮은 일, 그리고 이직의도: 일의 심리학 이론의 적용. **진로교육연구**, 35(2), 89-111. doi:10.32341/JCER.2022.6.35.2.89
- 양난미 (2008). 진로상담: 중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상담학연구**, 9(2), 537-550. doi:10.15703/kjc.9.2.200806.537
- 양난미, 이은경 (2012).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51-68.
- 염서영, 진정아 (2017). 부모의 기대수준이 초기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1(2), 67-85.
- 오치선, 이복희 (2005).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3), 93-113.
- 유진희 (2012).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은영, 이지연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2(3), 191-213. doi:10.15820/khjss.2016.42.3.008

- 이응택, 최재혁 (2017). 고등학생의 부모와의관계 및 부모와의진로관련대화와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1), 47-66.
- 이의빈, 엄명용 (2019). 여자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50(4), 5-29. doi:10.16999/kasws.2019.50.4.5
- 이정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 **釜山教育學研究**, 13(2), 101-123.
- 이주연, 한세영 (2004). 어머니와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성역할 사회화에 대한 지각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2), 251-261.
- 임윤서, 안윤정 (2016). 여대생의 자기성찰에서 드러난 '여성으로서 일'의 의미 탐색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2), 195-228. doi:10.18205/kpa.2016.21.2.002
- 전소영, 심예린 (2022). 여성 직장인의 직장 내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괜찮은 일의 관계: 조직의 성차별 문화로 조절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3), 353-372. doi:10.20406/kjcs.2022.8.28.3.353
- 전윤식, 이성해, 정영홍, 박선자, 김상구 (1988). 부산대학교 신입생의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연구보**, 24, 1-44.
- 조은주 (2001).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nard, S., Rose, A., Dainty, A., & Hassan, T. (2021). Understanding social constructions of becoming an academic through women's collective career narratives.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45(10), 1342-1355. doi:10.1080/0309877X.2020.1865523
- Batool, S. S., & Ghayas, S. (2020). Process of career identity formation among adolescents: components and factors. *Heliyon*, 6(9), e04905. doi:10.1016/j.heliyon.2020.e04905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doi:10.1037//0033-2909.107.2.238
- Bernard, D. L., Lige, Q. M., Willis, H. A., Sosoo, E. E., & Neblett, E. W. (2017). Impostor phenomenon and mental health: The influence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gend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2), 155. doi:10.1037/cou0000197
- Bradley-Geist, J. C., Rivera, I., & Geringer, S. D. (2015). The collateral damage

- of ambient sexism: Observing sexism impacts bystander self-esteem and career aspirations. *Sex Roles*, 73, 29-42. doi:10.1007/s11199-015-0512-y
- Bravata, D. M., Watts, S. A., Keefer, A. L., Madhusudhan, D. K., Taylor, K. T., Clark, D. M., ... & Hagg, H. K. (2020). Prevalence, predictors, and treatment of impostor syndrom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35, 1252-1275. doi:10.1007/s11606-019-05364-1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doi:10.1177/0049124192021002005
- Capodilupo, C. M., Nadal, K. L., Corman, L., Hamit, S., Lyons, O. B., & Weinberg, A. (2010). The Manifestation of Gender Microaggressions. In D. W. Sue (Ed),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pp. 193-216).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Chakraverty, D. (2019). Impostor phenomenon in STEM: Occurrence, attribution, and identity. *Studies in Graduate and Postdoctoral Education*, 10(1), 2-20. doi:10.1108/sgpe-d-18-00014
- Chrisman, S. M., Pieper, W. A., Clance, P. R., Holland, C. L., & Glickauf-Hughes, C. (1995). Validation of the Clance imposter phenomenon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3), 456-467. doi:10.1207/s15327752jpa6503_6
- Clance, P. R. (1985). *The impostor phenomenon: When success makes you feel like a fake* (pp. 20-22). Toronto: Bantam Books.
- Clance, P. R., & Imes, S. A. (1978). The imposter phenomenon in high achieving women: Dynamics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Psychotherapy (Chicago, Ill.)*, 15(3), 241-247. doi:10.1037/h0086006
- Clark, M., Vardeman, K., & Barba, S. (2014). Perceived inadequacy: A study of the imposter phenomenon among college and research libraria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5(3), 255-271. doi:10.5860/crl12-423
- Cusack, C. E., Hughes, J. L., & Nuhu, N. (2013). Connecting gender and mental health to imposter phenomenon feelings. *Psi Chi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18(2), 74-81. doi:10.24839/2164-8204.JN18.2.74
- Delaney, J. M., & Devereux, P. J. (2022). Gender differences in STEM persistence after graduation. *Economica*, 89(356), 862-883. doi:10.1111/ecca.12437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 doi: 10.1037/h0021861
- Dunlap, S. T., & Barth, J. M. (2019). Career stereotypes and identities: Implicit beliefs and major choice for college women and men in STEM and female-dominated fields. *Sex Roles*, 81(9), 548-560. doi:10.1007/s11199-019-1013-1
- Erekson, D. M., Larsen, R. A., Clayton, C. K., Hamm, I., Hoskin, J. M., Morrison, S., ... & Beecher, M. E. (2024). Is the measure good enough? Measurement invariance and validity of the clance imposter phenomenon scale in a university population. *Psychological Reports*, 127(4), 1984-2004. doi:10.1177/00332941221139991
- Freeman, K. J., Houghton, S., Carr, S. E., & Nestel, D. (2022). Measuring impostor phenomenon in healthcare simulation educators: A validation of the clance impostor phenomenon scale and leary impostorism scale. *BMC medical education*, 22(1), 1-6. doi:10.1186/s12909-022-03190-4
- Glick, P., & Fiske, S. T.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Measuring ambivalent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119-135. doi:10.1111/j.1471-6402.1997.tb00104.x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 doi:10.1037/0022-0167.28.6.545
- Gray, M. P., & O'Brien, K. M. (2007). Advancing the assessment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3), 317-337. doi:10.1177/1069072707301211
- Holland, J. J.,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doi:10.1037/h0077731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 Hutchins, H. M., Penney, L. M., & Sublett, L. W. (2018). What imposters risk at work: Exploring imposter phenomenon, stress coping, and job outcom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9(1), 31-48. doi:10.1002/hrdq.21304

- Hutchins, H. M., & Rainbolt, H. (2017). What triggers imposter phenomenon among academic faculty? A critical incident study exploring antecedents, coping,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20(3), 194-214. doi:10.1080/13678868.2016.1248205
- Jarrett, C. (2010). Feeling like a fraud. *Psychologist*, 23(5), 380-383.
- Jöstl, G., Bergsmann, E., Lüftenegger, M., Schober, B., & Spiel, C. (2012). When will they blow my cover? The impostor phenomenon among Austrian doctoral students. *Zeitschrift für Psychologie/Journal of Psychology*, 220(2), 109-120. doi:10.1027/2151-2604/a000102
- Kim, J. Y., & Meister, A. (2023). Microaggressions, interrupted: The experience and effects of gender microaggressions for women in STEM. *Journal of Business Ethics*, 185(3), 513-531. doi:10.1007/s10551-022-05203-0
- Kim, Y. H., O'Brien, K. M., & Kim, H. (2016). Measuring career aspirations across cultures: Using the career aspiration scale with young korean wome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573-585. doi:10.1177/1069072715599538
-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In R. B. Kline, M. Williams, & W. P. Vogt (Eds.),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ling*. Sage.
- Klinkhammer, M., & Saul-Soprun, G. (2009). The impostor syndrome in the academic and scientific area. *Organisationsberatung, Supervision, Coaching*, 16, 165-182. doi:10.1007/s11613-009-0119-7
- Kuchynka, S. L., Salomon, K., Bosson, J. K., El-Hout, M., Kiebel, E., Cooperman, C., & Toomey, R. (2018).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nd college women's STEM outcom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2(1), 72-87. doi:10.1177/0361684317741889
- Li, S., Hughes, J. L., & Thu, S. M. (2014). The links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imposter phenomenon. *Psi Chi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19(2), 50-57. doi:10.24839/2164-8204.JN19.2.50
- Nadal, K. L. (2010). Gender microaggression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In M. A. Paludi (Ed), *Feminism and women's rights worldwide, Volume 2: Mental and Physical Health* (pp. 155-175). Santa Barbara, CA: Praeger.
- Napp, C., & Breda, T. (2022). The stereotype that girls lack talent: A worldwide investigation. *Science Advances*, 8(10). doi:10.1126/sciadv.abm3689

- Neureiter, M., & Traut-Mattausch, E. (2016). An inner barrier to career development: Preconditions of the impostor phenomenon and consequences for career development. *Frontiers in psychology*, 7(48), 1-15. doi:10.3389/fpsyg.2016.00048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3), 257-274. doi:10.1006/jvbe.1996.0024
- Rollero, C., & Fedi, A. (2014). When benevolence harms women and favours men: The effects of ambivalent sexism on leadership aspiration. *Ceskoslovenska psychologie*, 58(6), 535-542.
- Rudman, L. A., & Phelan, J. E. (2010). The effect of priming gender roles on women's implicit gender beliefs and career aspirations. *Social psychology*, 41(3), 192-202. doi:10.1027/1864-9335/a000027
- Şahin, E. E., & Gülşen, F. U. (2022). Clance Impostor Phenomenon Scale (CIPS): adaptation and validation in Turkish university students. *Psycho-Educational Research Reviews*, 11(1), 270-282. doi:10.52963/PERR_Biruni_V11.N1.17
- Simon, M., & Choi, Y. J. (2018). Using factor analysis to validate the Clance Impostor Phenomenon Scale in sample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doctoral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 173-175. doi:10.1016/j.paid.2017.09.039
- Song, S., & Chang, P. C. (2025). The Impact of Benevolent Sexism on Women's Career Growth: A Moderated Serial Mediation Model. *Behavioral Sciences*, 15(1), 59. doi:10.3390/bs15010059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John Wiley & Sons.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Nadal, K. L.,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 doi:10.1037/0003-066x.62.4.271
- Sue D. W., & Capodilupo C. M. (2008). Racial,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Sue D. W., Sue D. (Eds.),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5th ed., pp. 105-130). John Wiley & Sons.

- Vergauwe, J., Wille, B., Feys, M., De Fruyt, F., & Anseel, F. (2015). Fear of being exposed: The trait-relatedness of the impostor phenomenon and its relevance in the work context.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0*, 565-581. doi:10.1007/s10869-014-9382-5
- Yaffe, Y. (2020). Does self-esteem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imposter feelings among female education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1*(1), 156-163. doi:10.1016/j.paid.2019.109789

ABSTRACT

Gender microaggressions within families and career identity among Korean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Impostor syndrome and career aspirations as mediators

Beom, Sujin* · Seol, Kyoung Ok**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ink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within families and the career development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Specifically, gender microaggressions within families are expected to negatively predict career identity through the mediation of impostor syndrome and career aspirations. To test the hypothesis, a self-reported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0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aged 18 to 2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in Mplus 8.0. We found that as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experience gender microaggressions more frequently within their families, their career identity tends to be lower. Impostor syndrome mediated the link between gender microaggressions within families and career identity. That is, more frequent experiences of gender microaggressions within familie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impostor syndrome, which led to lower career identity. We also found that gender microaggressions within families predicted career identity through a sequential mediation of both impostor syndrome and career aspiration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gender microaggressions occurring within families can impede the career development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during the critical stage of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This study also shed lights on psychological mechanisms of this linkage. That is, subtle and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s that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experience within their families may lead to impostor syndrome—characterized by self-doubt regarding their abilities and achievements—and lower career aspirations, eventually acting as barriers to their career identity develop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interventions.

Key Words: gender microaggressions within families, impostor syndrome, career aspirations, career identity, Korean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 Ewha Womans University

** Ewha Woma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oseol@ewha.ac.kr